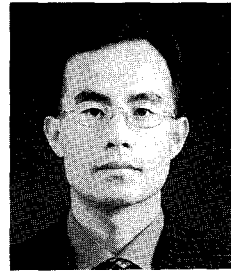


토종닭, 백세미에서의 감보로와 티푸스 대처 방안



이 동 우

메리알코리아(주) Avian Technical Manager
수의학 박사

삼계탕, 토종닭을 많이 먹는 계절이 돌아왔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의 형태는 육계, 토종닭, 산란계 수평아리, 백세미 등 여러형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만의 독특한 사육형태로 알려진 백세미가 차지하는 부분은 실로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세미 사육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지만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질병적인 측면에서 백세미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관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

산란계 암닭과 육용종계 수닭의 교배로 생산되고 있는 백세미는 일반 육계에 비하여 감보로(IBD)와 티푸스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은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감보로(IBD)와 티푸스의 경우엔 품종에 따른 감수성의 큰 차이를 보여 두 질병 공히 육계보다는 산란계통에서 훨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세미와 토종닭의 경우 닭의 계통에 따른 병원체의 감수성 차이로 이들 품종에

서는 감보로(IBD)와 티푸스가 매우 중요한 질병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육계농가에서의 감보로의 피해 양상은 직접적인 폐사보다는 임상증상이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불현성 감염) 감보로의 특성인 면역억제현상으로 대장균등 2차 세균감염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가 주를 이룬다.

육계농가에서 흔히 관찰되는 사육 후반기의 대장균증은 실제로 여러가지 항생제를 써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바로 어린 일령에 감보로(IBD)의 감염이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문헌에 의하면 육계군에서의 이러한 불현성 감염 계군은 감보로 음성 계군에 비하여 18%의 생산성적을 저하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백세미, 토종닭의 경우는 산란계 품종이 들어가 있으므로 육계보다도 감보로에 대한 피해가 훨씬 크다.

실제로 필자가 실시한 실험에 의하면 국내에서 분리한 강병원성 IBDV를 감수성 있는

일령의(4~6주령) 산란계에 접종시 35%의 폐사율을 보이지만 육계에서의 폐사는 거의 미미하다(보통 필드에서도 2~4% 이내). 그러므로 백세미의 사육에 있어서 감보로의 특별한 예방은 다른 여는 질병에 우선하여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보로병 바이러스(IBDV)는 소독제 등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커서 한 번 감염된 농장은 좀처럼 크리닝이 되지 않고 상재 감염농장으로 된다. 따라서 철저한 백신 접종이 피해의 극소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IBDV에 대한 백신은 두 가지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는 종계에 오일백신접종으로 고도 면역을 시켜 후대병아리에 모체이행항체가 이행되어 어린 일령에 모체이행항체로 병아리를 방어토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어린 병아리에 생독백신을 실시하여 생독백신으로 야외바이러스에 대하여 방어토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IBD종계 면역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무리 종계에 여러 번 오일 백

신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모체이행항체가 수준에 있어서 개체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병아리에 여러 번 생독 백신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적용되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은 부화 1일령등 조기에 백신접종할 수 있는 백신(버706)을 실시하여 모체이행항체가 매우 낮은 개체를 대상(5~20%)으로 1차 감작(Priming)시킨후 소위 위험시기(일반적으로 높은 모체이행항체를 보유하고더라도 백신바이러스 보다 야외바이러스가 먼저 작용할수 있는 시기) 방어용으로 중간독 백신 보다 모체이행항체를 보다 잘 극복하여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중간독 플러스 백신(IBD-Blen ; 아이비디 블렌)을 2차로 실시하는 방안이 많이 적용되도 있다.

흔히 버-706은 1일령에 부화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면 보통 농장에서 1~7일령 사이에 분무로 접종하되 IBD-Blen 2차 백신은 12~14일령 사이에 접종하면 무난할 것이다.

또한, 백세미는 일반 육계와 비하여 티푸스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데 티푸스에 대한 대책은 어미닭부터 티푸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이미 어미닭에 티푸스가 감염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병아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난계대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한다면 오일백신(바이오타이포이드)이 난계대 차단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양계**

